EASTERN ECONOMIC FORUM

주간 정보 다이제스트

극동 경제 발전

2017년 8월 21일

극동 경제포럼소식

2017년8월18일, «인테르팍스»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 논의 계획.

러시아 연방 특허청(로스빠젠트)이블레프청장과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벨라루시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야, 카자흐스탄, 끼르기지야, 타직스탄, 르크메니스탄의 해외특허기관장들 그리고 국제지적재산권기구대표들 및 기타 국제특허관련기구관계자들이 2017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적재산권–지역발전도구' 국제포럼에 참석할 것이다.

http://www.interfax.ru/events/news/575391

2017년8월 18일, «이즈베스찌야»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극동 청년 사업가 포럼 진행 계획

청년 사업가 포럼인 '중심축– 극동'이9월5일 동방경제포럼의 개막일에 열릴 것이다. 참가자는 400여명으로35세이하의청년사업가들이주를이를것이다.

포럼 주제 중에서는 '러시아기업이 아태지역시장으로 진출하는 법', '러시아와 글로벌사업우수사례를 극동으로 확산하는 법',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그리고 '극동헥타르'와 같은 신규경제조치를 활용한 창업경험공유'가 될 예정이다.

http://iz.ru/634252/2017-08-18/forum-molodykh-predprinimatelei-proidet-v-ramkakh-vef-2017

2017년 8월18일, 타스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최초의 러일관계연구소 오픈 예정

이 신규 센터의 주요 과제는 러시아와 일본간 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국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류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센터의 연구원들은 극동에서의 양국협력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http://tass.ru/obschestvo/4490669

2017년 8월7일, 노보스찌

제3회동방경제포럼 참가자수3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요망

포럼준비위원회회의에서 트루트네프 러시아부총리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는 4개국 정상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몽골, 인도, 미국, 캐나다 등 각 국사절단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방경제포럼이 여러모로 극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만큼, '극동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라는 포럼 개최의 기본목적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포럼을 진행하는 것'이 운영상의 우선과제라고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강조했다.

https://ria.ru/economy/20170817/1500504970.html

2017년 8월16일, «페더럴프레스»

중국 왕양 부총리, 제3회 동방경제포럼 참석 예정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6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3회동방경제포럼에 중국 왕양 부총리가 중국사절단을 공식적으로이끌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정부인사뿐만아니라 Baosteel Resources International Co Ltd, China State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td, China Oilfield Services Ltd, Far East Oilfield Services LLC 등 중국대기업임원들도 참여할 것이다. 이번 포럼의 중국사절단의 규모는 중국측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의미라'며 코뱌코프 자문관은 밝혔다.

http://fedpress.ru/news/25/economy/1838527

2017년8월5일, 리아노보스찌

'극동헥타르' 활용 우수사례 공개 예정

프로그램 실현은 포럼 특정 세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 NaDalnyiVostok.rf'이라는 연방정부시스템개발과 그의 현대화에 관련 계획을 평가하고, 러시아인 대상 무상 토지 취득 신규 대상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또한 '극동헥타르'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콘테스트 지원자들이 사업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ttps://riarealty.ru/news_infrastructure/20170815/408841086.html

2017년 8월14일, 콤소몰스까야프라우다

동방경제포럼 마당에 21세까지의 유도 국제경기대회 열릴 계획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카노기념 청소년 유도 국제경기가 푸틴 대통령과 신조 아베

일본 총리 후원 하에 개최될 것이다. 처음 열리는 경기에는 2012년 올림픽메달리스트인 갈스탼, 이사예프, 하이부라예프도 참여할 것이다. 남성부와 여성부의 우승자들을 위해 특별상이 준비되어 있다. 경기티켓판매수익금은 모두 극동의 일본백학보호프로젝트에 기부할 계획이다.

https://www.kp.ru/daily/26717.5/3743122

극동 국가정책

2017년 8월17일, News.Rambler

극동개발이슈,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릴 국가위원회에서 논의 계획.

푸틴 대통령 주재 하에 진행될 국가위원회 회의가 제 3회동방경제포럼에 진행될 예정이다. 극동시민생활의 질 개선에 맞춰진 '극동지역개발 2단계' 이슈들이 회의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가 밝혔다.

https://news.rambler.ru/politics/37668469-voprosy-razvitiya-dalnego-vostoka-obsudyat-na-zasedanii-prezidiuma-gossoveta

극동개발 신규 정책 – 성공사례

22017년8월 17일, 타스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에 임가공공장 개막식 열릴 계획

공장 개막식 행사가 동방경제포럼 일정내에 열릴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내 '아무르스크'지역에 건설될 목재임 가공관련 통합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 공장에서 접착목재,가구합판, 베니어합판, 목판, 바이오연료, 나무창틀 및 문틀, 원목마루 등 여타 제품들을 생산할 예정이다.

http://tass.ru/ekonomika/4489895

2017년 8월14일,타스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러시아 극한 지대에 건설된 금채취 종합기업 가동 돌입

야쿠티야 드라쥐노 금채굴지에 '타르인스끼 채굴 종합기업 공장'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극동 투자사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지원 하에 실행이 되었다. 정부지원덕분에 전선구축이 끝났으며, 도로조성을 위한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총 투자비는98억루블이며, 공장초기생산능력은 연간 광물70만톤이다. 공장가동은 약45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http://tass.ru/ekonomika/447980

참조 자료 : 2017-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인 '로스콘그레스'재단은 러시아 최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조직 운영기관이다. '로스콘그레스'재단은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시민행사 조직 및 운영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미지 강화 및 경제 잠재력 개발 도모를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재단은 이들 행사의 내용을 구성하고,업체 및 기관에 컨설팅, 정보제공,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러시아와 국제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분석하며, 이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재단은 몬테비데오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양한 연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이들 행사에는 세계 유력 기업가,전문가,매스미디어 관계자들,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프로모션 하는데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주며,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기여활동 및 자선 프로젝트 조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